

△ 音 考

權 在 善

I

△은 이미 여러 學者들에 依해서 그 音價가 探索되고¹⁾, 異說이 전혀 없는 타는 아니지만²⁾, 그 音價가 Z일 거라는 데 衆論을 도우고 있다.

△의 音價가 Z로 認定되는 論據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³⁾ 첫째 訓民正音에 不清不濁音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이 不清不濁音은 ㅇㄴㅁㅇㄹ스의 六初聲으로 △外에 모두가 有聲音이라는 事實로 보아 같은 類로 봐서 有聲音으로 解釋된다는 점이다.

又以聲音清濁而言之 ㄱ ㄴ ㅁ ㅅ ㅈ ㅎ 爲全清 ㅋ ㅌ ㅊ ㅍ ㅎ ㅌ ㅆ 爲次清 ㆁ ㆁ ㆁ ㆁ ㆁ ㆁ 爲全濁 ㆁ ㆁ ㆁ ㆁ ㆁ ㆁ 爲不清不濁(訓民正音制字解)

둘째로 우리 말에 使用된 例를 찾아보면 거의 有聲音間에 使用되었으므로 有聲音으로 解釋된다는 점이다.

① 體言末音과 用言語幹의 末音의 母音間에 處할 때

1) △音價를 다룬 論文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南廣祐博士 외는 모두 그 音價를 Z 또는 Z와 ㅈ(李崇寧), Z 또는 Zu(河野六郎)로 보고 있다.

小倉進平: 朝鮮方言の研究, 下卷, 各論 5, p. 34.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放一「鉄」話考一

최현태: 「△」자의 소리값 상고(고친 한글강)

이충녕: △音放(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No 3)

南廣祐: 『△論放(國語學論文集)』

許 雄: (改稿新版) 國語音韻學 pp. 298~303

李基文: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진단학보, No. 23)

2) 南廣祐博士의 上掲論文에서는 △音價의 實在性을 否定하고 있으나 大部分의 學者가 다른 意見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筆者도 마찬가지다.

南博士의 見解는 「봉」과 「△」을 같은 경우로 보고 있는데, 그 見解에 대해 首肯키 어려운 점은 許雄博士의 前揭書 p. 293 註 13의 說明에 풀리기로 한다.

3) 康遇聖의 捷解新語에서 日語의 ザ行音을 △子音을 가진 音節을 譯音한 例도 △의 推定을 드고 있으나, 外國音의 音譯은 반드시同一한 音價로 對應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音으로 譯音하므로 △의 音價解明에는 傍證에서 넘어설 수 없다

- 긋一(畫) : 짜 그여(永嘉 下 77)
 깃一(茂) : 쑥는 기슬씨라(楞 2 : 22)
 뒷一(續) : 니여(龍 44)
 듯一(愛) : 듯수샤(龍 93)
 풍一(注) : 灌 은 브슬씨오(月印 2 : 64)
 웃一(笑) : 우스샤(月印 7 : 26)
 짓一(作) : 製는 지술씨니(訓)
 又(邊) : 막에 움흘(龍 5)
 矢(象) : 그 출이(月印 21 : 24)

② 形態素 内部의 母音 사이

- 거의(殆) : 나흐침들 거의여 늘(月印 2 : 27)
 겨울(冬) : 모비 겨스렌 디고(月印 1 : 26)
 구수(槽) : 물 구수馬槽(字會 中 27)
 그스름(始) : 그스름 틱, 始(字會 下 35)
 막을(秋) : 물막 막을 빠햇 브리(蒙山 27)
 나시(濟) : 두로미 나시 혼도다(杜 8 : 18)
 마순(四十) : 마순 사소비(龍 88)
 막을(里) : 마을히 盛호야(月印 1 : 46)
 막숨(心) : 사름 막숨(龍 102)
 브암(鼈) : 브암爲鼈(訓 用字解)
 소식(問) : 혼잣 소실훈(龍 35)
 야수(弟) : 야수爲弟(訓 用字例)
 그스(牽) : 四天王이 출위 그스습고(月印 1 : 35)
 가수열(富) : 가수열며 쇄석호야(月印 1 : 23)

③ 合成語 内部의 母音사이

- 두서(二三) : 두서 사름(月印 7 : 16)
 두서(二三) : 두서들 월경 아니호야(胎產集要 9)
 {프서리(草問) : 프어리에서 자시고(月印 8 : 93)
 {프서리에(草問) : (杜 7 : 8)
 {한암(大麻) : 한암 너풀, 蕺草(四聲通解 上 70)
 {한암(大麻) : 한암 르, 蕺(字會 上 8)
 {한숨(大息) : 鳴呼는 한숨 디늦호 겨치라(月印 23)
 {한숨(大息) : 시름호야 한숨 디는 소리(석 19 : 14)
 ④ 體言이나 用言語幹 末音으로 母音間に ㅅ과 ㄷ이 通用되는 것
 {암(弟) : 암이 보털호도(龍 103)
 {앗(弟) : 앗이라(釋 13 : 2)

- { 염(孤) : 염이니(楞 2:3)
 { 엿(孤) : 엿이 獸子 | 아니며(月印 2:76)
- { 云(曳) : 웃기측 鬼우를 앗기니라(杜 20:34)
 { 云(曳) : 玉을 끌어온(杜 15:25)
- { 𩔠(扮) : 𩔠 빙어 𩔠 흐양하고(月印 2:5)
 { 𩔠(扮) : 𩔠 빙어 瑣珞하고(月印 7:3)
- { 𩔠(碎) : 모풀 𩔠아(永嘉 上 20)
 { 𩔠(碎) : 地獄을 𩔠아 𩔠여(月印 21:131)
- { 𩔠(碎) : 괴해 돌히 𩔠어디도다(杜 25:7)
 { 𩔠(碎) : 머리 𩔠어두를 박진바로(杜 20:19)

⑤ 母音間의 間音 △

나랑 일홍(龍 85)

마생 음홍(龍 5)

안행 음홍(龍 5)

⑥ 有聲子音 間의 △

보습느니(龍 5)

늙드를(龍 91)

오늘나래(龍 16, 56, 76)

하늘모솔周恩(龍 85)

님흐말(龍 98)

⑦ 有聲音과 母音間의 △

우횡龍(龍 100)

바를우희(龍 83)

웅보리(龍 16)

⑧ 擬聲語와 擬態語와 순수한 國語

설설(설설) : 活潑澈淸 설설 흐르는 물결에 비친 韶美를 달은 마리니(蒙法 43)

쉼염(아른아른) : 陽氣을 陽氣 쉼염 노는 거시니 거듯 거시라(金三 5:27)

容貌을 모르며 端正하고 의의히 허며 오시며 길가를 모로비 穏의하고 整齊히 허며(內訓 1:26)

⑨ 國語化한 漢子音

소하나(옹서하다) : 願호든 우리 罪를 厥하샤(月釋 2:70)

웃(웃) : 웃 더, 愉(訓蒙下 22)

흐(흐) : 오시며 차비니며 나를 姚하며(釋譜 11:22)

辱드린(욕된) : 忍辱은 辱辱드린 일 𩔠을 써오(月釋 2:25)

신식(人事) : 신식 모루거든(救急簡易方 1:4)

⑩ 東國正韻의 漢字音

面성 二성 然연 人선 耳성 如聲 羅聲 ……등

擬聲語 擬態語는 特殊한 語彙이고 漢字音은 순수한 國語와는 異質的이라고 보아 上揭例 ⑧⑨⑩을例外로 하면 △은 語頭에 쓰인 일이 없고 語中の有聲音間에만 쓰인 것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들은例 가운데 ③과 ④의 ㅅ과 △이通用되는 것을 제쳐두고 보면 ㅅ과 △은 그것을 쓰는 音聲還境이 判然히 區分된다. 그 音聲還境은 非有聲音間과 有聲音間이란 差異이며, 現代國語에서도 有聲音間에서는 有聲音에 同化되어 有聲化되므로 △은 ㅅ에 對立되는 有聲音으로 解釋됨 직하다. 이렇게 解釋하면 △은 無聲音 S(ㅅ)의 有聲音 Z로 보겠고 △은 有聲音間에서 弱化되어 母音化되는데, Z는 S보다 間隙이 크고 弱한 音이므로 △의 變化過程도 함께 說明할 수 있다.

特히 用語의 活用에 있어서는 母音間과 非母音間에서 △과 ㅅ이 相補的分布를 갖는 것이 많다.

짓다(作)

(非母音間)

짓고 : 僧坊 짓고 衆僧 供養흔 티여(月釋 17:37)

짓는 : 鐘 짓는 버리 수즈낫다(杜 21:16)

(母音間)

지슬 : 繕는 글 지슬씨니(訓 註)

지운 : 모던 일 지운 다소로(月釋 1:46)

지식 : 表 지식 옆조봉니(月釋 2:69)

지소미 : 閨浮衆生의 葉 지소미(月釋 2:69)

有聲音間에서 △과 ㅅ이 混記된 例를 表記上 有無聲分別을 嚴密하게 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면 有聲音間에서는 原則上 △이라고 解釋할 수 있고 따라서 ㅅ과 △은 相補的 distribution를 가졌다고 解釋할 수도 있겠으며 이렇게 解釋되면 △은 ㅅ과는 別個의 音素가 아닌 ㅅ의 變異音에 不過하다고 하겠다.⁴⁾

그러나, 有聲音間에 △化하지 않는 一群의 語彙가 있으므로 有聲音間에서 △化하는 語彙와 對立되어 △과 ㅅ이 辨別的으로 機能한 것으로 보이므로 相補的 distribution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가시(妻)

4) 李基文 博士는 「△」은 「ㅅ」과 別個音素가 아니라는 見解를 보였다.
李基文：前揭書 參照

묘는 가시라(月釋 1:12)

가시며 子息이니 도라 𠙴아도(月釋 1:13)

사슴(鹿)

마운 사소미 등파(龍 88)

사슴爲鹿(訓)

鹿皮는 사소미 가치라(月釋 1:16)

가슴(胸)

처염 깃거 가소매 다맞는 모수물 소매 내요라(初杜解 9:17)

가슴 가온더(金三:2:46)

가신(棟)

소문 고드며 가신는 구보며(楞 5:25)

두들파 굳파 가신와 물애와(圓覺上 二之二 131)

디새(瓦)

흔 디셋 지벽을 가져(楞 5:72)

더러우니란 디새와 돌파를 뵈자(圓覺上 一之二 61)

거슬다(逆)

天意를 小人이 거스러(용 74)

아니 거스니(龍 75)

거스다 아니호노니(月釋 1:12)

맞다(脫)

누문 맞는 오술 아니 마사(龍 92)

즉처 바사 玆로지며(內訓 2:65)

벼서나다(脫出)

解脫은 벼서날씨니(釋 6:29)

衆生遁離 罪報 벼서였다가(月釋 21:16)

가시다(改)

本來へ 물고 性이 가시더 아니호야(月釋 1:50)

봉 바티 가시요더(永嘉下 78)

위와 같은 △의 有聲音說은 一面妥當性을 갖는 것 같지만 주어진 例에서 몇 가지를 無視하여 全面性을 缺如하고 國語言韻에서는 剩餘的資質인 有聲音에 偏重된 論理로서 △의 音價에 바르게 接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II

△을 S(ㅅ)의 有聲音 Z로 解釋할 수 없는 問題點을 먼저 藝혀보기로 한다.

① 國語의 語頭 △初聲

△의 音價를 論함에 있어서, 國語表記에서는 △이 語中 有聲音間에 使用되고 있는 것만이 注目되고 있으나 語頭 初聲에 使用된例가 있음을 同時に 注目해야 한다⁵⁾.

△이 거의 語頭에 使用된例가 없으나 擬聲語와 擬態語에 그려한例가 있음은 이미 앞에서 例舉한 바이다.

설설(설설)

염염(아른아른, 아풀아물)

식식호—(莊)

이것들이 擬聲語나 擬態語라고 해서 無視하고 있으나⁶⁾ 이것을 無視할 만한 理由는 成立되지 않는다. 國語의 擬聲語나 擬態語가 國語의 一般音韻에서 벗어난 特殊한 音韻이나 音聲 性格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설사 實際 發音에 있어서는 一般音韻과는 다른 擬聲語나 感嘆詞라도 一段 文字化하는 경우나 文字化한 것을 읽을 때는 一般音韻性格에 맞추어서 적고 읽게 된다. 더욱이 擬態語의 경우는 一般音韻性格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語頭初聲으로 表記되었다는 것은 語頭初聲에 그런 소리가 一般音韻性格으로 可能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語頭初聲의 例를 합쳐 생각하면 △은 語頭의 非有聲音間과 語中 有聲音間에 쓰이는데, 語中 有聲音間에서는 앞뒤의 有聲音에 同化하여 有聲化하였다고 보아 有聲音으로 볼 수 있다.

$S(\text{ㅅ}) \rightarrow Z(\triangle) / V - V^6)$

그러나, 語頭의 △은 이러한 有聲同化를 認定할 수 없고 오히려 語頭의 非有聲音間에 나타나므로 無聲化된다고 봐야 하겠다.

$Z(\triangle) \rightarrow S(\text{ㅅ}) / \# - V$

5) 許雄 博士는 漢字音과 擬聲語의 初聲 △의 例를 指摘하기는 하였으나 「例外」라 하여 論及을 回避하였다.

許雄：前揭書, p.301, 註(25) 參照

6) 「V」은 有聲音(Voice)을 보인다.

7) 國語化된 漢字音 곧 俗音, 國語接辭와 어울린 派生語의 漢字音도 一般漢字音과는 달리 國語音韻에 歸化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식호—」(莊)는 「식식호—」(月印 1:23)의 例가 있으나 異形態로 共存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ㅅ은 無聲音 S이고 ㄷ은 그의 有聲音 Z라는 見解에 立脚하는 경우 原來 有聲音 Z일지라도 語頭 非有聲音間에서 쓰이게되면 그 音聲還境에 따라 無聲音으로 復歸되어 ㅅ(S)으로 表記될 것이지 ㄷ(Z)으로 表記될 수 없다.

그런데도, 語頭初聲에 ㄷ이 使用되었다는 事實은 ㄷ은 Z音이 아니고 語頭에서 ㄷ은 無聲音, 語中 有聲音間에서는 有聲音인 獨自的인 어떤 音素임을 立證하는 것이 된다.

② 漢字音 ㄷ의 問題

한글이 漢字音表記에 使用된 점은 꼭 注目되는 점으로 한글의 制定動機가 漢字音更新事業에 있었다는 見解조차 있다. 그러나, 한글의 單字形 字素體系로 볼 때 한글은 分明히 國語表記를 위해 制定되었고 副次의이고 第二次的事業으로 漢字音表記를 위한 字素體系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⁸⁾

한글의 漢字音表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國語에 使用되는 漢字音表記를 위한 東國正韻式 漢字音의 경우와 洪武正韻譯訓 等 中國音 為主의 漢字音 表記를 위한 경우이다. 後者의 경우에는 거의 外國音表記의 發音記號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後者를 위한 字素體系의 마련은 한글 사용의 第三次的事業으로 正齒音과 齒頭音을 分別하기 위한 글자가 添加되고 있음을 周知의 事實이다. 한글의 制定意圖 및 글자의 音價가 이 第三次的事業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님은勿論이므로 한글 制定의 意圖와는 無關한 것이므로 이것은 論議하지 않기로 한다.

ㄷ은 解例本 訓民正音에 「不清不濁音」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不清不濁은 漢音으로는 有聲音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러나, 解例의 이러한 說明으로 ㄷ은 그것에 對應되는 漢字音과 ㅌ 같은 有聲音으로 速斷해서는 안된다.

訓民正音 解例의 字素體系는 東國正韻의 體系와 一致한다는 것은 이미 該혀진 事實이다.⁹⁾ 그러나, 한글의 單字形 字素體系와는 差異가 나고 訓民正音本文의 字素體系나 國語에 實제 使用된 字素體系와도 差異가 난다.

이 둘의 差異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8) 이에 대한 詳細한 論議는 筆者が 다음 論文에서 發表한 바 있다.

權在善：訓民正音(解例本)의 解譯方法에 대한 異見, 其二(嶺南大學校, 國語國文學會誌, 國어국문학연구 제12집) 參照

9) 初聲 體系에 대해서는 河野六郎, 中聲體系에 대해서는 俞昌均 博士가 訓民正音의 字素體系는 東國正韻의 子母體系에 一致함을 밝혔다.

河野六郎：再び 東國正韻に 就いて(朝鮮學報 第14輯)

俞昌均：東國正韻研究, 研究編

	本 文	解 例
初 聲 字 數	17 ¹⁾	23 ²⁾
中 聲 字 數	11 ³⁾	29 ⁴⁾
文 字 形 態	單字形	複合字形包含
說 明 形 態	獨自的 ⁵⁾	聲韻學的
體 系	國語的體系	東國正韻體系와一致

(1) 初聲凡十七字(制字解)

解例에서 全濁이라고 한 ㄱ ㄷ ㅂ ㅁ ㅋ ㅌ ㅍ ㄴ ㅎ 을 本文에서는 「並書」라고 하여 複合字로 說明하고 別段으로 附加說明하여 單字形의 複合으로 浮刻시켰으며 本文 끝에 並書規定을 따로 세웠으므로 그 속에 包含되는 것이다.

(2)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으로 說明하고 ㄱ ㄷ ㅂ ㅁ ㅋ ㅌ ㅍ ㄴ ㅎ 을 全濁으로 說明하고 있다

(3) 中聲凡十一字……(制字解)

(4) ㅏ ㅓ ㅗ ㅜ ㅓ ㅏ ㅓ ㅓ ㅓ ㅓ ㅓ

과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내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이 중에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등 複合字는 國語에는 쓰이지 않는 것이다.¹⁰⁾

(5) 本文에 複合字는 並書 連書라는 獨自의인 用語를 써서 解例의 聲韻學의 說明과는 差異가 난다. 「ㄱ ㄷ ㅂ ㅁ ㅋ ㅌ ㅍ ㄴ ㅎ」의 說明을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本文：並書

解例：全濁

이러한 事實은 한글이 國語의 表記를 위해서 制定되었고 第二次的으로 그 複合字를 活用하여 東國正韻體系에 알맞도록 再編成한 것을 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單字形으로 된 △이 漢字音表記를 위해서 마련되었다든가 聲韻學에 맞는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의 音素類로 制定된 것이 아님을 確證하는 것이다.

東國正韻이 中國의 聲韻學體系를 考慮하여 人工的으로 編成한 體系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은 國語에 混用되는 漢字音 곧 國語에 歸化한 漢字音의 體系였다는 事實은 國語의 音韻性格에 벗어난 音素로 編成될 수 없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當時 國語가 가진 音素의 範圍內에서 그것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는 體系라는 制約은 不可避한 일이다. 이러한

10) 實際 東國正韻의 字素에는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가 없지만 한글의 字素體系는 隅陽의 짹을 갖는 것이므로 이들을 그들 字素體系에 包含시켜 생각해야 하겠다.

俞昌均：前揭書，p.528 參照

事實은 東國正韻의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東國正韻序)

그러므로, 東國正韻의 漢字音에 使用된 한글은 그와 對應되는 漢音과 꽤 같은 音이기보다는 國音 가운데 그 漢音과 가장 類似한 音을 選擇한 것이겠다. 서로 音韻體系가 다른 두 나라의 音素 사이에는 가까운 類를 찾을 수 없는 異質的인 경우도 있겠고 等價關係는 形成하지 못하지만 어느 面으로 類似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東國正韻 制定時에도 苦心한 事實임은 그 序文에서 그 一端을 볼 수 있다.

如舌頭舌上脣重脣輕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母乎(東國正韻序)

그러므로, 한글의 音價를 考證함에 있어서 漢音으로 그 音價를 規定할 수 없는 것이다.

東國正韻은 비록 漢字音體系라 하드라도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國音과 그 國音을 基礎로 한 加工音이다. 그 加工方式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單字形音을 活用한 複合音 : ㄱㅋㅋ

② 終聲音의 初聲使用 : ㅌ

③ 初聲音의 終聲使用 : ㅊ

④ 兩脣摩擦音의 擴大 : ㅎ¹¹

이러한 加工音의 그 單音, 特定位置音, 또는 基礎音은 우리나라 사람의 잘 意識하는 것이므로 그의 加工音도 잘 意識 分別할 수 있어 國語의 音素性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加工音이 우리나라 사람에 依하여 發音되고 國語 單音에 混用되어 國語의 一部로 쓰이는 以上 비록 그것이 加工音이더라도 절로 國語의 音韻性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漢字音 語頭初聲에 사용된 △은 國語의 語中 有聲音間에 사용된 △과 같은 音素로 解釋되어야 하며 語頭에서 無聲音, 語中有聲音間에서는 有聲音으로, 다른 音의 경우와 같이 解釋하여야 하겠다.

11) 兩脣摩擦音의 擴大는 訓民正音 本文의 「連書」規定에 依해 그 可用性을 마련하고 있다.

③ 音韻體系上으로 본 有聲音 問題

15世紀에 有聲間에서 變化한 同一類型의 소리로는 𠂔이 있다.

① 有聲音間의 語幹末音

어듭- (暗) : 어드본(龍 30)

갓갑- (近) : 갓가고매(月印序 14)

돕- (助) : 도봉실씨(龍 34)

눕- (臥) : 누본(龍 84)

덥- (暑) : 더본(月印 1:18)

媪- (薄) : 열본(龍 30)

② 形態素內部의 有聲音間

드뢰- (飴) : 드뢰의爲飴(訓)

두비- (爲) : 두비니히다(龍 98)

서불 (京) : 서불 使者(龍 18)

사비 (蝦) : 사비爲蝦(訓)

호봉사(獨) : 호봉사 나사가샤(龍 35)

이불- (枯) : 이본 남기(龍 84)

③ 合成語內部의 有聲音間

대범(大虎) : 물 우희 대범물(龍 87)

대발(竹田) : 龍 五卷 26張

말발(菱) : 鐵鑄는 말발미라(月印 21:80)

마른비(紛雨) : 韓拂리 마른비 마티 누리다(月印 1:36)

以上과 같은 例로 보아 「崩」은 「曰」이 有聲音間에서 變化한 것으로 非有聲音間의 「曰」과 排他的 分布를 가지는 것이 되며 「曰」의 變異音(有聲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¹²⁾ 「曰」과 「崩」은 單純한 聲(Voice)의 對立이 아니라 兩脣破裂音과 兩脣摩擦音이라는, 性格이 다른 소리이다.

「崩」의 音價는 訓民正音에 具體的으로 說明되어 있다.

○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者 以輕音脣作合而喉聲多(解例 制字解)

崔世珍의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서는 더욱 詳細히 說明되어 있다.

12) 劉昌惇 教授는 「崩」에 대해서 「그 音價는 有聲音曰의 異音韻이거나 또는 曰> 오／우 변화의 象徵的 表記에 쓰인 字母」(俞昌惇: 前揭書)라고 하여 「曰」과 「崩」을 變異音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語中有聲音間에 「曰」이 그대로 쓰인 例가 혼하므로 「崩」과 「曰」이 相補的關係를 가진 것이 아니다.

合脣作聲 爲日而曰脣重音 爲日之時 將合勿合吹氣出聲 爲崩而曰脣輕音 制字加空圈
於日下者 卽虛脣出聲之義也(四聲通解 所載)

이 說明으로 崩은 단순한 日(兩脣破裂音)의 有聲音이 아니라 兩脣摩擦音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國語의 一部로 쓰였던 國語漢字音(東國正韻의 音)
에서 語頭初聲에 쓰였으므로 語中에 純國語音에 쓰였던 경우와 합쳐서 語頭
非有聲音間에서는 無聲音(∅), 語中 有聲音間에서는 有聲音(S)으로 났던 獨
自的인 한 音素로 생각된다.¹³⁾

만약 △을 ×(S)의 有聲音(Z)으로 본다면 語頭初聲에 有聲音(Z)이 쓰인
것이 되며 S와 Z가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當時의 音韻
體系上으로 봐서 不合理한 現象이 된다. 國語史上에 朝鮮初期로부터 現代語
에 이르기까지 國語音韻에서 有聲音과 無聲音이 對立되어 辨別的機能을 가
진 證據는 없다. 만약 語頭初聲에 Z音을 認定하면 S만 有聲音이 對立되는
例外의 現象이 생기는데, 다른 音素의 경우 有無聲의 對立이 없는 體系에서
唯一한 한 双의 有無聲對立이 있었다는 것은 體系上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령 S와 Z만이 有無聲의 對立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은 國語音韻에 有無
聲對立이 끌나는 時期나 始作하는 時期임이 證明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
하면 그 以前에 有無聲對立이 存在하다가 消滅하는 時期의 殘滓現象이든가
아니면 有無聲對立이 發生하는 時期로 S對 Z가 그 蕊芽이고 그 後代에 그
러한 對立이 發展된 것이 아니고서는 首肯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國語
史上에서 그러한 現象은 認定되지 않는다.

실상 國語의 音素對立에 있어서 「有聲」은 剩餘的資質에 不過하고 辨別的
機能으로 作用하지 못하였다. 國語史上에서 有無聲對立의 語例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音價의 說明에서도 「聲」(Voice)에 對한 資質을 診明 說明
은 볼 수 없다. 解例의 制字解의 說明을 보드라도 이러한 事實을 알 수 있
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八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腭之形 脣音ㅁ 象口形 脣音ㅅ
ㅅ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ㅇ而ㅎ ㅎ而ㅍ 其

13) 許雄 博士는 「崩」을 語頭音으로 쓰인 漢音은 無聲音 ∅, 語中有聲音間에만 쓰
인 韓音은 無聲音 ∅로 보았다.

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 \diamond 爲異

半舌音 ㄹ 半齒音 \triangle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制字解)

위의 說明을 살펴보면 「 $ㄴ$ 對 $ㄷ$, $ㅁ$ 對 $ㅂ$ 」의 制字에 有聲資質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 \diamond 」에서도 마찬가지다. 「唯 \diamond 爲異」라고 하여 同系基本字에 加畫하는 方法과는 다름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重要視된 資質은 \diamond 과 닮은 결과 날숨이 코로 나가는 現象이다.

唯牙之 \diamond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聲與 \diamond 相似(制字解)

\triangle 은 ㄹ과 같은 方法으로 制字되었는데 ㄹ로 보아 「그 體가 다르다」고 한 것은 「 $ㄴ$ 對 $ㄷ$ 」의 關係를 말하는 것으로 「 $ㄴ$ 」이나 「 $ㅁ$ 」이 다 같은 有聲音이므로 聲(Voice)을 考慮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triangle 도 그렇게 解釋된다.

④ \triangle 音의 變化

\triangle 音의 變化는 \triangle 의 音價解明에 重要한 一助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現在까지의 研究로서는 有聲音間에 存在하였던 \triangle 은 더욱 弱化되어서 零化되었다고 보고 있음이一般的이다. 그러나, 方言에서는 \triangle 의 變化에 있어서 零化, w化, j化의 세 경우가 있으며 w化는 中西部地方에 걸쳐서 넓은 地域에 分布하고 j化는 黃海道를 中心으로 해서 京畿 北部 등 一部地域에 分布하고 있음이 指摘되고 있다¹⁴⁾. 그런데, 筆者는 本稿에서 文獻語와 서울말에서도 \triangle 이 變化하여 相當數가 圓脣母音化한 事實을 指摘코자 한다.

\triangle 의 母音化의 樣狀을 文獻上의 語例를 살펴보면 零化한 事實을 쉽게 알 수 있다. 便宜上 남 광우著 「고어사전」에서 語彙를 고르고 그 出典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零化된 語彙는 主로 現代語로 對比시키고 現代語에 그에 對比되는 語形이 없다고 보이는 것은 近世語로 對比시키고 例표를 붙인다.

마술(秋) 一가을

마官司(材料) 一감

구수(槽) 一구유

나수리(進賜) 一나으리

나식(薺) 一냉이

마순(四十) 一마흔

마술(官) 一*마을

마술(村) 一마을

14) 河野六郎：前掲書。

더주슴뼉	—저즈음뼉
두어(二三)	—두어
손오(白手)	—*손오
요조숨	—요즈음
이속고	—이 육고
처럼	—처음
거쇠	—거의
무우(霧)	—무우
소식(問)	—사이
어식(覘)	—어이
기음(雜草)	—기 음
거위(鷄)	—*거위
マ애(剪)	—*マ에
겨슬／겨슬(冬)	—*겨울／*겨울
겨스사리(葛)	—*겨으사리／*겨어사리
아수(弟)	—*아우
여스／여수(狐)	—*여으／*여우
사수(數)	—*수익／*수인
그스튿(始)	—그으름
마수멀다(富)	—「가우 멀다
뉘웃나(悔)	—*뉘웃다
드의업다(恐)	—*드의업다
쿵어(盡)	—그어
나아오다(進來)	—나아오다
나아가다(進出)	—나아가다
조우롭다(要)	—조우롭다
그쓰기	—그윽이

• 音 消失에 依하여 • 音이 「一」나 「ト」 등으로 變한 것을 考慮하면 위에서 들은 語彙들의 △이例外 없이 零化된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母音化된 形態의 現代語 語彙中에는相當數가 圓脣母音化된 語彙들을 볼 수 있다.

마애(剪)	—가위
겨슬(冬)	—겨울
겨스사리(葛)	—겨우사리
아수(弟)	—아우
여스(狐)	—여우

조수(核)	一자위
사수(數)	一주사위
조수롭다(要)	一종요롭다

이렇게 圓脣母音化한 例는 古語에도 있다.

겨 웃 쇠 둘(冬三月)	一 겨 웃 쇠 둘
뉘 웃 다(悔)	一뉘 웃 다

이 圓脣化한 語形을 어떻게 解釋하느냐는 것은 問題이다. 文獻上의 所載時期를 살펴보면 거의 圓脣母音化한 語形의 出現은 後代의 일이다.

(A)	(B)	(C)
マ애(剪)：初朴通事，訓蒙	マ애：老解，朴解	가위：現
{ 겨슬(冬)：月釋，楞解，初杜 解，金三教急補遺 方，永嘉	겨슬：東國三綱，重杜 解 訓蒙(光)類合	겨울：現
겨슬(冬)：初杜解，救急簡易 方	겨울：石千，東國，新 續三綱，老解， 朴通	
겨스사리(葛)：四解，村方。 月令	{ 겨으사리：東醫 겨여사리：方藥	겨우사리：現
아수(芻)：月釋，內訓	아우：重杜解，老解， 아오：三綱	야우：現
여스(狐)：訓蒙	{ 여으：重杜解，太平廣 記，倭解	여우：現
{ 여수(狐)：內訓，初杜解	여우：重杜解，老解， 朴通	
조수(核)：楞解，圓覺，內訓		자위：現
{ 조조수(瞳)：月釋	눈조의：重杜解	눈자위：現
{ 조조식(瞳)：初杜解	겨웃식들：重杜解	겨울식달：現
겨 웃 쇠 둘(冬三月)：初杜解	뉘웃다：釋譜，杜解	뉘웃다：三譯解
뉘 웃 다(悔)：初杜解	조으롭다：重杜解	종요롭다：現
조수롭다(要)：釋譜，月 釋，蒙法，初杜解		

얼른 보면 文獻에 出現된 資料의 時期로 보아 上例 (C)語形(圓脣母音化된 語形)은 (B)語形(△의 零化語形)에서 變化된 것의 疑心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速斷할 수 없다.

첫째, 文獻이, 國語의 變化, 發展이 充分히反映되는 것이 아니다. 一例를 들면 :

(世宗代) (成宗代)

뉘웃다(悔)—뉘솟다(悔)

*須達이 뉘웃더 말라(釋譜6:19)

구티여 보여께 도로물 뉘솟더 마를더니라(初杜解 17:36)

文獻의 資料만으로 따진다면 「뉘웃다」에서 「뉘솟다」로 變化했다고 解釋되어야 하겠으나 그것은 옳은 解釋이 아님은勿論이다.

둘째, 文獻에 들어나지 않는 異形態가 並存하다가 어느 時期에 文獻에 登場하기도 한다. 그러한例를 다음에 몇 개 들어 보기로 한다. 별표를 붙인 것은 文獻에 登場하지 않고 並存한 것으로 推測되는 異形態를 보인다.

(A)	(B)	(C)
{ *뉘웃다—뉘솟다(初杜解) { 뉘웃다(釋譜)	—뉘솟다(重杜解)	
{ 손소(釋譜, 月印, 初杜解) { *손소	—손오(重杜解)	—손수(現)
{ 품소 { *품소	—(품소 重杜 小解(明))	—품소(現)
{ 구우(訓蒙·光) { *구우	—구유(類合)	—구유(現)
{ 브의업다(月釋) { *브의업다	—브의업다(重杜解)	
{ 겨슬(月釋, 初杜解) { *겨슬	—겨흘(重杜解)	—부설다(現)
{ *부수다 { *부수다(訓蒙) { *부하다 { *부하다(訓蒙)	—부하다(倭解)	
{ *부조사 { *부조사 { *부식다 { *부식다	—부식다(蘆溪, 獨樂堂)	—부시다(現)

文獻에 띠는 資料에 따라 語彙變化의 時期를 推定하면 「母音」에서 「ㅅ」 [S]으로 變化했다는 不當한 解釋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資料의 時間性이 혼혹 되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위의 例에 보이는 「ㅅ」 [S] 子音

을 가진 語彙는 비록 그것이 그 前의 文獻에 나타난 일이 없더라도 그 前에
一部의 言衆에 依하여 文獻語의 밖에서 存在해 온 것이라고 解釋해야 하겠다.
그런데, △音 音節이 圓脣母音化한 語彙들을 보면, 單純히 △音을 零化된
平脣音語形에서 變한 것으로 볼 수 없다. 相當數에 共通되는 音韻變化란
一定한 要因이 作用하였을 것이 틀림 없는데, 平脣母音에서 圓脣母音化할
무렵 要因도 發見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⁵⁾

平脣母音에서 圓脣母音으로 變化하는 要因을 發見할 수 없는 以上 오히려
平脣母音의 語形과 圓脣母音의 語形은 異形態로 보는 것이 옳겠다. 이것들은
은 時間을 邇及해서 그 前부터 並存해 온 變異形態로 보인다. 그러한 事實
을 뒷받침 하는 것은 타을 같은 점이다.

① 이러한 變異形態가 일찍부터 存在한例가 있다.

겨울(冬) — { 겨울(重杜解)
겨우(重杜解)

뉘우(悔) — {뉘우(社解)
뉘옹(三譯解)}

뉘스초(悔) — {뉘으초(釋譜, 月釋, 圓覺)
뉘으초(釋解)

② △ 음 音節을 가진 語彙는 前에 存在한 것으로 보이는 變異形態가 文獻上에 떠지 않다가 當代이 後代에 나타난 例가 흥하다.¹⁶⁾

15) 「아수」(弟)의變化를 「아수>아오>아으>아우」로 보고 「아으>아우」는 强化化보기도 한다. 그러나, 筆者는 「아우」의 「우」는 △子音을 가진, 같은 音聲條件을 가지 다른 語彙의變化와 같이 說明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수(弟) ; 아우(아우)

가매(翦) : 가와(가위)

가 같은 要因에 依해서 變化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가새」(剪)의 變化를 「가애」(剪) > 「가외」로 보아 「가애」 > 「가외」가 強化에 依한 것이라고는 說明할 수 없다. 떠나서, 「아우」 > 「아오」의 變化도 強化로 볼 수 없다.

「아오>아우, 가외>가위」는 다음과 같은 音韻變化와 同軌의 現象이다.

마조(相對)>마주 모도(皆)>모두 가마파(鳥)>가마귀

그러므로, 「아수」(弟)의 變化는 다음과처럼 보인다.

아수(弟) / 아우 — 아우

16) 許雄博士는 「몹소」의 다음에 「몹소」가 出現한 原因을 다음처럼 強化로 보았다.
「몹소」가 /△/ 消失에 際하여 「몹소」로 變한 것도 一種의 強化다」(許雄: 前揭書p. 508)

만약 △ 음價를 Z로 본다면 有聲音間의 「△」이 「ㅅ」으로 变했다는 것은 有聲音間에서 有聲音이 無聲音 S化하였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것은 無聲音化라 할지 하며, 古語나 現代語에서 語中有聲音間에서 無聲化된다는 것은 國語의 性格上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	(B)	(C)
손소(自手)	→손소	/손수
몸소(自身)		→/*몸소
구속(槽)		→/*구속
모의업다(恐)	→모의업다	/무업다
겨울(冬)	→겨울	/겨슬
빛인다(照)	→빛인다	/*빛인다

(A), (B), (C)는 時間의 先後를 보인다. /는 그 前에 둘 수 있는 語素가
갑작이 出現한 것을 보이며, 뒷표는 近世語의 語例임을 보인다.)

以上의 두 가지 점을考慮하면 △ 음 音 節 을 가진 語彙의 圓脣母音化는 前에 그런 變異形態가 이루어져 있다가 後代에 勢力を 얻어 널리 쓰여진 것으로 斷定할 수 있다. 다음 예는 이러한 事實을 證明한다.

따라서 △ 音節을 가졌던 語彙의 圓唇母音化한 語彙는 다음 같은 過程으로 形成, 出現한 것으로 보겠다.

마애(剪)	\swarrow 마애 \searrow *마외—가위
겨울(冬)	\swarrow 겨울 \searrow *겨울—겨울

만약 Δ 가 단순한 有聲音 Z가 아니고 다른 獨自의인 音素라면 強化의 경우도 成立되겠으나 다음 같은 점에서 強化는 아니다.

△ 音이 消失할 때 強化된 것이면 뒤에 出現하는 △ 보다도 더욱 弱화된 形態는 說明할 수 있다.

子龜(訓蒙光)→子龜(類合)→子龜(現)

그리고, 有聲音間에서 有聲化 또는 大間隙間에서 間隙同化를 한 소리가 無聲音 또는 小間隙化 하기에는 그와 같은 變化를 하는 要因이 發生해야 하겠는데, 邊境同化로 安全되어 있으므로 그 邊境의 變化 곧 無聲間化 또는 小間隙間化 되지 않고는 새로운 邊境同化 곧 無聲音化 또는 小間隙化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음소」에서 「음소」로 바뀐 것은 다음처럼 「回歸」로 說明되어야 하겠다.

(A) (B) (C)

겨스사리(葛) < 겨으사리
 *겨우사리—겨우사리

아수(弟) < 아오
 *아오—아우

여스(狐) < 여으
 *여우—여우

*標는 文獻에 표지 않던 語形임을 보임

따라서, 圓脣母音化된 △音節의 語彙는 △音에서 바로 變化된 語形으로 解釋된다.

그런데, 圓脣母音化된 語例는 第二音節에 △을 가졌으며 그 母音이 거의 •母音이다. 그래서, 圓脣母音化는 그 音節의 子音 △의 性格에 依한 것보다도 •母音의 變化에 基因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母音의 變化를 보면 거의 「一, ト」등 平脣母音化 되었는데, 第二音節의 •音의 圓脣母音化는 그 音節의 子音의 性格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圓脣母音化된 音節의 子音은 다음 세 가지다.

① △下

이것은 앞에서 예를 든 바 있다.

③ ㄹ下

마루(粉) 一가루

마루(樑) 一가로

노루(鹿) 一노루

나루(津) 一나루

마루(棟) 一마루

동마루(脊) 一동마루

하루(一日) 一하루

하루사리(浮) 一하루사리

사루잡다(生捕) 一사로잡다

이루다(成) 一이루다

니루(能) 一이루

바루(正道) 一바로

④ ㅁ下

고물(船尾) 一고물

나물(菜蔬) 一나물

마물오다(齊) 一마무르다

사무초다(通) 一사무치다

소못	—사못
조물	—차못

다른 子音下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이 세 子音下에서만 相當數가 圓脣母音化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들 子音이 圓脣母音化의 原因이 되었다고 解釋된다. 그뿐 아니라 이 들 子音들의 調音性格을 따져 봄으로 圓脣化할 可能性은 역시 엿보인다.

「ㅁ」[m]下의 圓脣母音化는 「ㅁ」[m]의 音聲資質인 兩脣調音의 影響에 서 脣化한 것이라고 解釋된다. 兩脣調音의 영향에서 그 音節의 母音이 脣化된 것은 「唇音下의 一音의 圓脣母音化에서 그例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圓脣母音化는 周知의 事實이다.

풀(草) — 풀
물(水) — 물
뿔(角) — 뿔
불(火) — 불

근音下의 圓脣母音化도 역시 그 子音 근音의 性格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인다. 근은 舌尖을 세워서 齒槽에 대었다가 떨기 때문에 턱 사이가, 다른 破裂音과 摩擦音의 어느 것 보다도 크다. 턱 사이가 크다고 하는 것은 아래 턱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口腔內가 자연히 둥글게 된다. 여기에 開口度가 적고 다소라도 턱이 처지는 母音이 뒤따르게 되면 母音本身的 調音狀態가 이루어지기 쉽게 된다.

以上의 두 音의 性格으로 봄으로 △音도 그러한 性格을 가져서 그 音節의 母音이 脣化한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이 거의 零化되었으되,相當數가 圓脣母音化했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이 單純한 「ㅅ」[S]의 有聲音이 아님을 들어내는 것으로 △은 圓脣性을 띠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圓脣化할 수 있는 性格을 가진 소리임을 알게 한다.

III

以上의 諸點으로 봄으로 △이 單純한 ㅅ[S]의 有聲音 Z가 아님을 알 수 있

17) ㅁ子音下의 ㅅ의 圓脣化는 脣音ㅁ의 同化現象임이 일찍 意識되었다.

河野六郎：前掲書，李崇寧：前掲書 參照。

「소띠(純)>소베, 一ㄉ록(語尾)>一ㄉ루」등은 逆行同化로 解釋된다.

나. 그러면, 具體的으로 \triangle 의 音價는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하겠다.

① \triangle 은 舌端 齒槽 摩擦性의 音이다.

\triangle 은 訓民正音 本文에 ス \triangle ツ \triangle ツ 등의 齒音類에 넣고 있다.

ス 齒音 如即字初發聲 並書 如慈字初發聲

ツ 齒音 如侵字初發聲

△ 齒音 如戌字初發聲 並書 如邪字初發聲

△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勿論 ス \triangle ツ \triangle ツ 등의 齒音파는 別類로 半齒音이라고 規定하고 있지만 그用語上으로 봐서 齒音의 一種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東國正韻의 聲母體系에 맞춘 聲韻學의 分類이므로 그用語만으로 그 音價를 斷定할 수 없지만 그는 적어도 漢音의 半齒音과 가까운 音임이 分明하다.

더 具體的으로 \triangle 이 ス \triangle ツ \triangle ツ과 調音點이 같은 音임은 解例의 制字解의 說明에서 確認된다.

齒音△ 象齒形……

半舌音△ 半齒音△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解例 制字解)

制字解에서 字形은 調音作用을 象形한 것으로 說明되어 있는데 象齒形이란 그 調音作用을 說明한 것이다. 「象齒形」이 具體的으로 어떤 調音作用을 象形 하였느냐는 것은 두고라도 「半齒音△……亦象齒之形」이란 말로써 그調音이 齒音△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같은 舌端音이라도 그 한글의 字形을 보면 舌音과 齒音이 兩分된다.

舌音 ㄴ ㄷ ㅌ ㄹ

齒音 ㅅ ㅈ ㅊ ㅂ

舌音 對 齒音의 重要한 差異는 調音方法上으로 齒音이 摩擦音이나 破擦音으로 摩擦性을 갖는 데 있다. 그러므로, \triangle 도 半齒音이라 하였으므로 역시 摩擦性을 가진 소리일 것을 알 수 있다.

또 實際 用例에서 齒音과 同類임을 再確認할 수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다음같은 例를 살펴보자.

앗이 狐 (釋13:2)

孤는 열이니 (楞 2:3)

햇이 獅子 아니여 (月印 2:76)

웃기슬 굽우를 앗기니라 (杜 20:34)

玉을 굽우문 (杜 15:25)

마장 빛어 헤흔 양하고 (月印 2:5)

마장 빛어 瓔珞하고 (月印 7:3)

여기서 「암：앗, 열：엿, 굽우-：굽우, 빛-：빛-」은 죄다 終聲으로 쓰인
예인데 終聲으로 △과 ㅅ이 混用된 것은 所謂「終聲復用初聲」과 「八終聲 使用」의 混用이다. 八終聲 使用은 같은 類의 終聲이 中和한 結果이다.

ㄱㅋ	ㅡㄱ
ㄷㅌ	ㅡㄷ
ㅂㅍ	ㅡㅂ
ㅅㅊㅅㅊㅅㅅ	
ㅎ	ㅡㅎ
ㄴ	ㅡㄴ
ㄹ	ㅡㄹ
ㅁ	ㅡㅁ

여기서 ㅅ이 原音素 ㅅ으로 實現된 것은 ㅅㅊㅅㅊㅅㅅ를 同類임을 들어내는
것이다. ㅅㅊㅅㅊ이 舌端 齒槽 摩擦性의 音이므로 △도 역시 그러한 音임이
疑心없다.

(2) ㅅ보다 間隙이 큰 소리이다.

國語史上으로 보아 △音은 ㅅ音이 母音化 되는 過渡的인 音으로 解釋된다. 이것은 周知의 事實로, 다음 같은 겸으로 쉽게 認定된다.

① △音은 脱落하면서 모두 母音化하였다.

② 加工的인 漢子音이나 擬聲語, 擬態語 外는 모두가 間隙度가 큰 母音이나 有聲

音間에 使用 되어서 間隙同化를 한 것으로 解釋된다. ¹⁸⁾

특히 다음 같은例는 그 語源으로 보아 ㅅ이 母音間에서 弱化(間隙增大)한事實을 確證한다.

두여 : 둘(二)+여(三)

두여 두래 (匱覽上 一之一 112)

두서 허를 디내여서 (東國新續三綱, 孝子圖 6:42)

프여리 : 풀(草)+여리(問)

프여리에서 차시고 (月 8:93)

프여리 (社 7:8)

한암 : 한(大)+암(麻)

한암 너풀 : 蕤草(四聲通 70)

한암 률 : 蕤(字會上 8)

한숨 : 한(大)+숨(息)

嗚呼는 한숨 디롯호 겨치라 (月印序 23)

시름호야 한숨 디난 소리 (釋 19:14)

이처럼 ㅅ이 母音化되고 間隙이 큰 母音에 同化되었다는事實은 ㅅ은 ㅅ보다 間隙度數가 큰 音임을 들어 낸다.

東國正韻 制定以來 漢音 日母는 ㅅ음으로 對應시켰는데 이것은 ㅅ음이 漢音 日母와 같거나 적어도 가까운 音임을 實證하는 것이다. 그런데, 漢音 日母의 音을 「ㅅ」과 「ㅇ」의 間音이라고 보았다.

華音之半者 수우間音(淺喉音詳變宮) (朴性源 : 華東正音通釋韻考)

日△屬半商半宮金 音生於半齒而兼喉(申景潛·訓民正音圖解)

△日母即ㅅㅇ 間音而我國難於成音 故今不錄(洪啓禮 : 三韻聲彙凡例)

夫△固ㅅㅇ之間也 (柳僖診 : 文志)

18) 間隙增大는一般的으로「弱化」라는 말로 說明하고 있다. 이「弱化」에 대하여 朴炳采 博士는 다음과처럼 說明하였다.

「이란 S-음의 弱化現象은 印歐語에서 無聲子音이 약하게 發音될 때 나타나는 Mediae[...] 불리는 b/d/z 등에서 z와 對此시킬 수 있을 것이다.」

朴炳采 : 古代 國語의 研究, 音韻篇, p.409, 註 15

當時의 日母漢音의 音價를 分明히 알 수 없으나 Z로 推定하는데¹⁹⁾ 이 漢音도 S보다 間隙이 큰 音임이 分明하다.

國語에 있어서 有無聲對立은 剩餘的 資質이므로 有無聲을 考慮하지 않는다면 △이 實際 어떠한 소리이든 간에 ㅅ과 △의 差異는 間隙의 大小差異에 不過하다.

③ ㅅ[S]의 調音과 圓唇性

△의 一部分이 圓唇化하였다는 것은 △의 音價를 理解하는데 重要한 示唆가 된다. 이런 圓唇化의 現象을 考慮하여 △音의 音價를 探索하자면 다음 두 가지 점에 留意하여야 하겠다.

첫째, 圓唇化한 事實

母音間에서 母音에 同化하여 脱落된 類似한例로는 「봉」이 있다. 이 「봉」은 兩脣摩擦音으로 原來 圓唇性을 가진 소리인데 母音化함에 있어서 그 圓唇性은 그대로 물려져서 거의 모두 圓唇母音(「오」 또는 「우」)化하였다. 이런 경우로 비추어서 變化된 音에 圓唇性을 가졌다라는 事實은 그 音이 圓唇化될 수 있는 어떤 音聲의 性格을 原來 가지고 있었다고 解釋하여야 하겠다.

둘째, 全體가 아니라 一部分이 圓唇化한 事實

一部分이 變異形態로 圓唇化하였다는 事實은 다음 두 가지 事實을 뜻한다. 圓唇化한 것이 一部分의 變異形態에 그치고 全體의 大勢가 圓唇化되지 않았음은 圓唇化되기 前의 音이 圓唇性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낸다. 原來 圓唇性을 가졌다면 봉의 경우로 보아 거의 모두 圓唇性을 가진 母音으로 變化하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一部分의 變異形態나마 圓唇化하였다는 것은 圓唇化할 수 있는 어떤 性格을 原來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圓唇性으로 變化할 수 있는 性格이 없었다면 전혀 圓唇化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 ㅅ보다 間隙이 큰 소리라는 事實, 有無聲의 變異音을 가지는 한 音素라는 事實, 그리고 ㅅ과 同調音點의 摩擦音이 타는 이 네 가지 事實로써 △音價를 具體的으로 밝혀 보기도 한다. ㅅ(有聲音은 S, 無聲音은 Z)과 同調音點에서 같은 調音方法으로 調音되는 소리로 ㅅ보다 間隙을 크게 해서 調音하는 경우 ㅅ처럼 혀끝을 아래턱에 불이고 發音하면 母音化되고 摩擦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ㅅ은 혀끝과 齒槽 사이에 좁은 通路를 留워

19) 15世紀代에 譯音된 漢音 日母의 音價가 어떠했는지는 未詳이나 姜信沆 博士는 中國音韻學者들의 推定音을 考慮해서 卷舌音 Z로 보았다.

姜信沆: 四聲通解研究 參照

서 摩擦을 일으키는 소리로 그 通路를 조금만 크게 하면 摩擦이 일어나지 못하고 母音化되고 만다. 齒槽外의 다른 位置에서 摩擦을 일으키지 않는 以上의 큰 間隙은 齒槽摩擦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 調音點이 齒槽인 경우, ㅅ[S] 보다 조금이라도 間隙이 크게 해서 摩擦을 일으키려면 아래 턱을 조금 쳐뜨리고 혀끝을 편 채로 들어서 調音하면 可能하다. 이 狀態로 혀끝을 위로 치켜들면 卷舌音이 되겠다. 그러나 ㅌ의 卷舌音이 아님은 그 變化에서 「ㄹ」化한 例가 두드러지지 않는 점에서 分明하다.

15世紀當時의 漢音이 卷舌音 Z인 듯한데 위에서 推定한 ㅅ음은 이 卷舌音 Z와 類似하다 하겠다. 卷舌音 S는 혀끝이 치켜 올려 가 齒槽와의 通路가 매우 좁아지겠으나 그 것의 有聲音 Z는 間隙이 S보다는 큰 소리가 되겠으며 혀끝을 편 채로 들어 間隙이 크게 나는 ㅌ은 有聲音 Z와 近似하게 되겠다.

이와 같은 解釋을 뒷받침하는 것은 申景濟의 漢音 說明과 解例의 說明이다. 申景濟은 「ㄹ」과 「ㅅ」을 나름처럼 說明하였다.

來属于微半宮火 音生於半舌面兼喉

日ㄣ屬牛商半宮金 音生於半齒面兼喉(申景濟：訓民正音圖解)

이 글은 來母(ㄹ)과 日母(ㄣ)가 다 共通으로 喉音性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 喉音性의 間隙이 큼을 뜻하는 것이다. 申母(ㅅ)은 결후 半齒(半商)音으로 規定했던 그 前의 音性格의 比해 半商半宮(半齒半喉)이란 卷舌音性格을 들어내는 것으로 解釋된다. 혀가 치켜들려 弱하게 摩擦하므로 「ㄹ」과 같이 間隙이 크게 느껴진 것 같다.

訓民正音 解例의 制字解에서는 「ㄹ」과 「ㅅ」의 制字原理가同一함을 나름처럼 說明하고 있다.

半舌音ㄹ 半齒音ㅅ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解例 制字解)

곧 「ㄹ」과 「ㅅ」의 制字方法이同一함을 말하였는데 한글의 制字方法은 그 音價에 대한 見解의 反映이므로 이 두 음이 어떤 共通性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制字方法을 使用한 것은 틀림없다. 「ㄹ」이 「ㄴ」과 基本字形은 같고 모양이 틀리게 制字한 것은 申景濟의 說明처럼 그 喉音性(大間隙性)에 있음이勿論이다. 이것으로 보아 ㅅ을 같은 方法으로 制字한 것은

ヶ가 아래턱에서 뜨고 間隙이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制字한 것으로 解釋된다. 以上으로 스의 音價는 아래턱을 약간 칙뜨리고 혀를 편 채로 가볍게, 약간 들어 齒槽와의 間隙을 좁혀 弱하게 摩擦하는 音으로 解釋된다. 이 과한 소리는 앞에서도 言及한 것처럼 卷舌音 Z와 有似하나 혀끝을 치켜 올리지 않는 점에서 그 와 다른 獨特한 音이다. 이러한 音이면 그 變化에서 S化, W化, j化됨을 쉽게理解할 수 있다. 아래턱에서 약간 들린 혀풀이 큰 間隙을維持하면서 아래턱에 불게 되면 齒槽摩擦은 일어날 수 없고 子音性은 消失하게 된다. 이렇게 齒槽摩擦이 不可能하게 된 狀態에서 子音性을維持하려면 혀끝을 아래턱에 끌어이고 큰 間隙에서도 摩擦이 可能한 다른 位置로 調音點을 變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口腔內에 큰 間隙을維持하려면 自然히 摩擦의 位置는 兩脣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고 (W化), 반대로 兩脣摩擦을避하면 弱한 口蓋摩擦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J化)

그리고, 스은 그것이 語頭에서도 쓰였고 語中 有聲音間에도 쓰였으므로 어떤 變異音으로 處理될 수 없고 語頭에서는 無聲音, 語中 有聲音間에서는 有聲音의 變異音을 가진 한 音素로 解釋된다.

그리고 國語에서 이 音을 記述함에 있어서는 卷舌音에 가까운 音이므로 語頭의 無聲音은 S, 語中 有聲音間의 有聲音은 Z의 記號를 使用함 좋이겠다.